

지구촌경영 대신 서초동행... 초격차 허무는 사법리스크

SAMSUNG 삼성의 품격

⑤ 다시 시작된 검찰 기소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 지속·기소 증거 없이 배임죄까지 새로 적용 해외출장 등 활동 제약 불가

삼성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여전히 이렇다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까지 새로 적용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은 일단 '초격차' 경영을 이어가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입증 계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을 알리게 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이 부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받았음에도 수사를 지속하다가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혐의다. 별다른 증거가 없고 전문가들도 무혐의에 무게를 실어왔음

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해 의문이 증폭된 상태다. 이 부회장이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힌 셈인 데다 삼성물산이 실제로는 합병으로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된 만큼, 성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혐의에도 기소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에 이어 '불법 승계'까지 2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고, 해외 출장 등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면서 대규모 수주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반도체가 비상이다. '반도체 비전 2030'으로 파운드리 사업부가 IBM에 이어 엔비디아에도 최신 제품을 수주하는 등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 부회장의 소송으로 경영에 틈이 생겨 사업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최대 업체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 확대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로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이 2018년부터 수백조원 투자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왔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이렇다할 투자 전략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도 문제다. 엘리엇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 분쟁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바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내용 그대로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로 엘리엇도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9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사법 당국을 향한 불신이 커졌을 뿐 아니라,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거액을 배상할 수도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5년 넘게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게 국내 경제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국내 제약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속도

잇따라 해외임상 승인... 막바지 연구 '눈앞'

GC녹십자웰빙 '라이넥'
2종 항바이러스제 동등 효능



대웅제약 'DWRX2003'
인도·필리핀서 임상 1상 승인



종근당 '나파벨탄'
러시아서 임상 2상... 연말결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글로벌 임상 기간도 단축되고 있어 빠른 개발이 기대된다.

7일 GC녹십자웰빙은 태반주사제인 '라이넥'이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이넥은 인태반 가수분해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한 제품이다. 앞서 라이넥의 항산

화 작용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 작용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충북대학교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건강한 폐렴(족제비)에 인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라이넥과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트루바다를 각각 투여하며 바이러스를 측정했다.

연구에서 라이넥은 2종의 항바이러스제와 동등한 효력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접종한 모든 군에서

감염 후 4일차까지 체중이 감소하고 체온이 상승했으나, 라이넥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경우 음성대조군에 비해 6일부터 12일차까지 증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GC녹십자웰빙 연구진은 "라이넥 성분 중 항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엑소좀 내특이적인 핵산물질 후보를 발굴하여 명확한 기전을 규명하는 막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임상 1상을 필리핀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임상 1상 승인에 이은 두 번째 '니클로사마이드' 해외 임상 승인이다.

이번 필리핀 임상 1상은 코로나19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첫 투여를 시작한다. DWRX2003의 안전성, 내약성과 유효성 등 약물 유효성 초기 지표

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현지 법인의 허가개발역량을 활용해 4개월 이상 걸리는 임상 시험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 1상을 완료 후 2상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 확보 후에는 현지 긴급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3상 및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지난 달 31일 러시아에서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이번 러시아 임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증 및 중증의 폐렴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을 10여일 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임상은 빠르면 올 연말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임상에 성공시 국내 및 해외에 긴급승인을 신청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보급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lee@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신규확진 119명 재확산 이후 최저수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닷새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후 24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 늘어 누적 2만 129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달 14일 이후 연일 세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지난 3일 이후부터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권 확진자도 24일 만에 두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날 지역 감염자 중 서울 47명, 경기 30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78명이 새롭게 확진됐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36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간 사망자는 25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 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선 2단계가 20일 까지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주만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안정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철강업체, 프리미엄 철강제로 시장불황 정면 돌파

현대제철 고강도강 울트렉스 선배 포스코 기가스틸로 글로벌 경쟁력 ↑

국내 철강업체들이 프리미엄 철강제품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와 함께 수익성 강화를 위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강 브랜드 울트렉스(ULTREX)를 시장에 선보였다. 울트렉스는 '외부 충격에 강한 단단

한 철'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강도 강판 브랜드다.

이번에 내놓은 울트렉스는 이름의 미처럼 충격에 강한 초고장력강으로 자동차 내외관, 구조재 및 새시 부품이 요구하는 특성에 최적화된 핵심소재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울트렉스에 포함된 강종은 현재 개발 중인 3세대 강판 4종을 포함해 센터필러, 프론트 범퍼빔 등 자동차 주요 부위에 쓰이는 31종의 강종이 있다. 울트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탄소함량을 최적 비율로 조절하고 철저

한 냉각 제어 공정을 거침으로써 강도는 강하면서도 성형성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소재에 적용할 경우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해 다양한 구조재 및 부품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포스코도 프리미엄 철강제품인 기가스틸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가스틸의 경우 얇은 두께로 두꺼운 일반 강판과 같은 강도를 낼 수 있어 자동차 등에 사용할 경우 무게를



현대제철 직원이 자동차 강판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줄여 연비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포스코 측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철강제품 생산을 확대해 철강시장에서 초격차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